

필자의 생각이 담긴 언어적 구조

영어를 푸는 방정식, $XrYs$ 유정우 영어

1. 필자의 생각은 특별하다.

제 인강 첫 부분의 명제이기도 한 이 내용은 글의 주제가 가진 특징을 말합니다. 흔히, 통념비판형 글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힘들여 글을 쓰는 이유는 글에서 말하는 것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 생각을 굳이 힘들여 글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는 와중에 명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 지문의 주제가 되기는 어렵고 이를 기초로 다른 특별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 필자의 생각의 특별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전자는 2에서 서술하겠습니다.

“필자의 생각은 모순이다”

모순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行動)의 앞뒤가 서로 일치(一致)되지 아니함’을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모순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불일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통념(지구는 평평하다) vs 진실(실은 둥글다)이 이러한 구조입니다. 외부와 내부가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경우도 이 경우입니다.

예컨대, 겉에서 보기엔 통명스러운 사람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인 경우에, 이는 외부와 내부가 서로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민물에 사는 물고기의 체액이 실은 바닷물의 성분이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글의 주제가 될 만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기적인 행동만이 행위의 동기가 될 것 같지만, 이타적인 행동도(전체로서의 종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10월 모의고사 32번은 코를 킁킁거리는 행동이 인지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는 것에 반하여 몸이 정신적 인지를 강화한다는 내용, 즉 [정신 → 몸]에 반하는 [몸 → 정신]의 구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필자의 생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르거나, 우리의 논리적 추론의 귀결과 다르거나, 겉에서 비쳐지는 것과 다른 것 등 그 내용의 중심 요소가 모순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1+1=2$ 라는 명제보다는 $1+1=3$ 이라는 명제가 더 유력하다고 할까요?

이 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글을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2. 관계를 말한다.

필자는 주로 어떤 것(사람, 사물, 사건, 관념 등)과 어떤 것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즉,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이 글의 주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철수라는 남자와 영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존재하고 움직이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둘의 관계는 우리가 지각하기 어렵습니다. 그 둘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 즉 그 둘의 관계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달은 누군가가 비로소 말을 하고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관계야말로 특별한 생각과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관계를 말하는 언어의 구조

여기서 이 관계에 대해 말하는 언어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칭 명제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것은 문장입니다. 즉, 주어와 술부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S \rightarrow V]$ 의 구조로 도식화합니다. 이는 “철수가 밥을 먹는다.”와 같이 단순한 구조를 가진 문장을 정리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다음은 인과의 구조입니다.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적, 방법과 목표, 주장과 근거 등 이 모든 것은 모두 판단의 시점만 다를 뿐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일으키거나, 달성하게 하거나,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거나, 주장을 근거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X \rightarrow Y]$ 의 구도가 됩니다. 이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와 같이 인과적 방향성이 명확한 구조에 유용합니다.(상세한 내용은 오르비 클래스 인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rightarrow V$ 의 구도와 $X \rightarrow Y$ 의 구도는 겹쳐질 수 있지만 각각의 구도를 구별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의미가 있습니다.(후술 도식 참조)

마지막으로, 공존과 대립의 구도입니다. 이는 독립된 개체($S \rightarrow V$)나 인과적 과정들($X \rightarrow Y$)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크게 A와 B의 대립 또는 A와 B의 공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과학적·철학적 주제의 근본원리를 보는 생각의 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의 출판물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즉, 과학의 영역에서 힘의 작용으로서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의 문제는 공존과 대립 또는 상호작용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인간과 자연을 보는 관점 중 공존해야 살고, 대립하면 죽는다는 생태학적 주장도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며, 철학의 영역에서 변증법의 전개과정인 정(正)과 반(反)의 대립 후 합(合)에 이르는 과정도 대립과 공존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들을 한데 모아보면 하나의 식으로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1) 대립의 구도

B	$S \rightarrow V$	→	$S \rightarrow V$
	X		Y
↓	↑		↓
A	$S \rightarrow V$	→	$S \rightarrow V$
	-X		-Y

(2) 공존의 구도

추상적인 도식이라 이해하기 어렵나요? 위 구도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 것을 소개합니다.

영어 영역

ex) 대립의 구도

B	철수 → 집중학습	→	철수 → 90점
	X(집중)		Y(성공)
↓ ↓ ↓			
A	철수 → 산만	→	철수 → 89점
	-X(산만)		-Y(실패)

ex) 공존의 구도

B	철수 → 집중학습	→	철수 → 90점
	X(집중)		Y(성공)
↓ 집중 ↔ 휴식 → +Y(올 1등급: 대성공)			
A	철수 → 충분휴식	→	철수 → 89점
	-X(휴식)		-Y(실패)

* 위 도식은 휴식만 하면 실패하지만, 집중학습과 휴식을 조화롭게 병행 (= 공존)하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 위에 언급된 세 가지 명제와 세 가지 구도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영어지문을 읽으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